

“The Ebony Tower”에 나타나는 비밀의 세계와 그 상실에 대해

김 선 형

I

“나는 그저 어떤 비밀스런 세계라는 기본적 개념밖에 몰랐다. 그 비밀스런 세계로의 침입은 시련을 내포하고 최후의 보상으로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을 준다. 그 생각이 마음을 온통 사로잡았다. 어떤 의미에서 그 책은 나의 사적 경험에 대한 은유였다.”—존 파울즈

“I only knew the basic idea of a secret world, whose penetration involved ordeal and whose final reward was self-knowledge, obsessed me. In a way the book was a metaphor of my own personal experience.”—John Fowles¹⁾

중단편 소설집인 *The Ebony Tower*는 Fowles의 말에 따르자면 자신이 쓴 “이전 소설들의 몇몇 테마와 서사적 재현법에 대한 변주(“variations both on certain themes in previous books of mine and in methods of narrative presentation”)”²⁾로서 창작되었다고 한다. 많은 평자들은 특히 Fowles 최초의 소설 *The Magus*와 첫번째 중

1) Carol M. Barnum, “An Interview with John Fowles,” *Modern Fiction Studies* 31(1985) p.195. 인용한 대목은 면접자가 질의 중에 인용한 Fowles 자신의 발언이다.

2) Kerry McSweeney, “John Fowles’ Variations in *The Ebony Tower*,”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8(1981) p.303에서 재인용.

편 “The Ebony Tower”와의 유사점을 지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Fowles 자신도 “말하자면 *The Magus*의 리얼리즘판이라고 할 수 있다(This is a kind of realistic version of *The Magus*)”³⁾라는 말로 수긍한 바 있다. 그 때문인지 *The Magus*의 기본 아이디어로서 Fowles가 제시한 “어떤 비밀스런 세계(a secret world)”의 개념은 그대로 “The Ebony Tower”에서도 유효한 틀로 적용된다.

“The Ebony Tower”는 젊고 촉망받는 화가이자 미술평론가인 주인공 David Williams가 위대한 화가인 Henry Breasley를 인터뷰하기 위해 그의 농원인 Coetminais에 들어서 보내는 이틀간을 세심하게 추적하고 있는데, David Williams는 이 곳에서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비밀스런 세계”에 직면해 그 속에 침잠하게 되며 그를 통해 새로운 인식의 지평에 도달하게 된다. David Williams는 독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The Ebony Tower”를 읽는 독서경험의 중앙에 자리잡고 있는 인물이다. 훌륭한 교육을 받고 모범적인 가장이며 예술적 객기보다는 현실감각에 투철한, 또한 “무엇보다 인내심이 강하고, 공정한 태도를 지녔으며, 호기심이 강한 청년”(16)인 David Williams는 힘들이지 않고 독자의 동일시를 얻어낸다. 화자가 주인공에게 거리를 두고 냉랭한 분석의 태도를 취하는 일이 드물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그와 함께 호흡하며 공감하는 태도를 취하며, 소설의 흐름도 항상 카메라처럼 David Williams의 외면과 내면의 추이를 좇고 있다. 독자는 David Williams가 알게 되는 정보만을 알게 되며, 그가 모르는 사실은 끝내 알지 못한다. David Williams가 차츰 차츰 발을 들여놓고 점점 더 깊숙히 침잠하게 되는 “어떤 비밀스런 세계”의 단면들은 독자에게도 차츰차츰 그 비밀을 드러내는 거대한 미스

3) Fowles, “Giving the Reader a Choice: A Conversation with John Fowles,” *Listener* 31(1974) p. 584, McSweeney, p. 322에서 재인용.

테리와 같다. 그리고 그 세계가 “최후의 보상”으로 안겨주는 “스스로에 대한 깨달음”은 David Williams와 유사한 세계에 속해있는 대부분의 독자들에게도 의미깊은 것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Fowles 자신도 이 “깨달음”이 사적 경험의 중요한 측면을 밝혀주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이다. 작가와 독자, 그리고 주인공 David Williams는 같은 세계 속에 속한 사람들로 미묘한 공감대를 형성하며 낯설고 비밀스런 세계 속에 함께 침잠해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 셈이다.

본문에서는 중편 “The Ebony Tower”에 드러나고 있는 “비밀스런 세계”의 의미를 고찰하고, David Williams가 이 세계를 결국 상실하게 되는 원인,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비밀의 세계는 단순히 문명과 떨어져 있는 브르타뉴의 숲, Coetminais라는 공간적 배경만이 아니며, Henry Breasley와 “엘리워의 두 여자들”(51)이 구성하는 삶의 양식, Coetminais의 시공에 덧씌워져있는 역사적, 신화적, 상징적 의미의 층, 도덕적 금기로 제시되는 에로틱한 유혹, 자연과 삶과 예술의 관계, 현대와 과거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서로 얽혀 만들어진, 현대인의 일상적 현실에 대비되는 대안적 세계로서, 결과적으로는 현대예술과 개인의 삶이 상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통렬한 비판의 코멘트로 기능한다.

II

중세 초기에 나타난 현대소설의 조상들이 그토록 자주 숲을 배경으로 삼고 모색의 여정을 주제로 삼은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지 않다. 문학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소설은...(중략)...일종의 모색, 혹은 모험의 형태를 띠어왔다...(중략)...실제의 숲이 흔히 단조롭기만 하다는 사실은 잊어버려라. 은유

적인 숲은 끊임없는 서스펜스요, 배우를 기다리고 있는 무대이다.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발걸음마다 영웅과 처녀와 용과 신비스런 성들로 꽉 차 있는 것이다.

It is not for nothing that the ancestors of the modern novel that began to appear in the early Middle Ages so frequently had the forest for setting and the quest for central theme. Every novel since literary time began...is a form of quest, or adventure...Never mind that the actual forest is often a monotonous thing, the metaphorical forest is constant suspense, stage awaiting actors: heroes, maidens, dragons, mysterious castles at every step.⁴⁾

“수도사들의 숲”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Coetminais는 “The Ebony Tower”의 말없는, 그러나 가장 존재감이 강력한 주인공이다. 이 공간은 Henry Breasley를 위시한 거주자들은 물론이고, 이 곳을 찾아온 방문객인 David Williams의 삶에도 지울 수 없는 낙인을 찍는다. 그러나 이곳을 피상적으로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은 그리 만만한 일이 아니다. 예컨대 “The Ebony Tower”의 도입부분에서 David Williams는 “아무리 책을 읽고 지적 추론을 해봐도 직접경험을 대신할 수는 없다”(4)고 믿고 Breasley의 세계인 Coetminais를 몸소 체험하기 위해 자동차를 달려 자신만만하게 브르따뉴로 향한다. 그러나, Coetminais는 생각보다 훨씬 더 근접하기 어려운, 단절된 영역임이 곧 드러난다.

다시 숲 속을 반 마일 정도 달린 후, 그는 길이 막혀 있음을

4) Fowles, *The Tree* (1979) p. 60-61. Janet E. Lewis and Barry N. Olshen, “John Fowles and the Medieval Romance Tradition”, *Modern Fiction Studies* 31(1985) p. 16에서 재인용.

깨달았다. 그 곳에서 숲은 끝이 나고 햇살이 가득 비치는 잔디 깔린 과수원이 시작되고 있었다.

Half a mile on again through the forest he found his way barred,
just before the trees gave way to sunlight and a grassy orchard.

(4)

길이 막혀 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 영어로 “사전약속이 없는 방문객은 절대사절”(4)이라는 표지판까지 붙어있고, 안쪽으로 자물쇠가 채워져있다. 바깥에서 들여다보는 Coetminais는 되풀이해 “햇살 가득한 정원”(5)으로 묘사되어 “질은 그늘”(4) 아래 서 있어야 하는 외부인들에게는 절로 소외감이 들게 하는 달콤한 유혹인데, 그러면서도 “도어노커도 없고, 초인종의 흔적도 없이”(5) 외부와의 접촉을 굳게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David Williams에게 주어지는 최초의 좌절이자 시험이라 하겠는데, 그는 결국 허락없이 담장을 넘어들어감으로써 초대받지 못한 손님, 반갑지 않은 침입자가 되고 만다. Coetminais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금기와 함께 저항하기 힘든 유혹을 그에게 제시하며, 그는 적법한 Coetminais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그 참모습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 시험들을 통과해야 한다. 예컨대 담장을 넘은 David은 곧장 또다른 유혹에 직면한다. 별거벗고 한가로운 오후를 즐기고 있는 두 여인과 과수원의 회화적인 풍경을 자기도 모르게 훑쳐보게 되는 것이다. 그는 “전설 속으로 던져진”(6) 느낌을 받으며 은밀한 쾌감을 갖는다. 그러나 막상 어렵게 Henry Breasley와 만나 오후 내내 예술에 대해 피상적인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그는 Breasley를 둘러싼 두 여자들이 자신을 “방문객에 불과하며, 길도는 인물로 그다지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28) 듯한 느낌에 끊임없이 시달려야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외감의

표현은 곧 Coetminais의 진정한 일원이 되고 싶은 욕구가 David의 내면으로부터 솟아나고 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다.

Coetminais가 제공하는 이러한 도전과 유혹의 반복은 분명 “The Ebony Tower”가 표방하고 있는 중세 로맨스의 틀을 지시한다. Coetminais는 “실제로 견고 있는 이곳, 현재의 뿔뿔 숲일 뿐만 아니라 Chretien de Troyes의 *Lais*에 나오는 Broceliande 숲, 즉 “한때는 끝이 없던 숲”이자 “모든 모험들의 배경”(51)이다. David Williams는 이 곳에서 Chretien de Troyes의 기사 Yvain처럼 “모색(quest)”의 여정을 거쳐야만 하는데, 이는 Coetminais와 세 거주자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과 따로 떼어 생각하기 어렵다. 이곳은 Fowles가 의식적으로 모티프를 빌어오고 있는 Edmund Spenser의 *The Faerie Queene*의 세계처럼 겉모습과 실체가 종종 불일치하며, 수많은 눈속임의 요술이 난무하는 세계인 것이다.

이 세계에서 첫인상은 계속 전복된다. 때문에 David Williams는 끝없이 판단의 시행착오를 범한다. Henry Breasley의 조잡한 외양, 천박한 부르조아같은 인습적 발언에 실망한 David Williams는 그를 쉽게 “중이호랑이”로 치부해버리지만, 점차 모습을 드러내는 Breasley의 거대한 자아는 군림하는 “술탄”이자 “야성”의 힘을 지녔음이 밝혀지고, 낮에 보여준 은유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태도도 해가 지자 알코올의 힘을 업고 짐승처럼 야만적이고 독단적인 근성으로 돌변한다. Breasley를 둘러싼 두 여자들에 대해서도 David는 처음에 “노인네의 약점을 착취하면서 뭔가 노리는 것이 있을 것”(29)이라고 추측하지만, 이 역시 틀린 판단으로 나중엔 오히려 그 여자들이 Breasley의 마법에 “마치 주문에 걸린 것처럼”(83)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David는 “괴짜(the Freak)”라고 불리는 Anne 역시 처음에는 “앵터리갈

은 섹스인형”(30)으로 치부해버리지만, 나중에는 그녀의 “가볍게 툭 치듯 내뱉는 말버릇 밑에 깔린 어떤 사랑스러움, 그리고 솔직함”(65)에 눈을 뜨게 된다.

그러나 이 모든 ‘틀린 판단들’은 결국 David Williams가 푸욱 젖어있는 부르조아의 인습적 사고방식과 어설픈 도덕적 자신감, 그리고 이론으로 무장한 무력한 예술관 등 그 자신의 눈을 덮고 있는 층층의 눈가리개들에 기인한다. Coetminais는 과연 *The Faerie Queene*의 세계처럼 모색의 여정에 오른 기사의 마음가짐을 비추는 거울같은 세계인 것이다. David Williams가 수없는 시행 착오를 겪으면서도 한 단계 한 단계 시험에 통과하며 전진하는 것은 그가 마음 속 깊이 지니고 있는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 배후에 숨겨진 진실”(20-21)에 대한 갈망 때문이다. 이 갈망은 기사의 마법갑옷과 마찬가지로 Coetminais를 탐험하는 힘이자 자기 앞에 나타나는 예상치 못한 진실의 면면을 끈기있게 “배우게”(33)하는 동기가 되어준다.

이렇게 Coetminais의 진실을 더듬어가다가, 그는 말 그대로 상식적 태도와 인습적 편견에서 해방된 “벌거벗음” 그 자체에 직면하며, 이 경험을 통해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하게 된다. 뽕풍 숲으로의 피크닉, 생쥐(the Mouse)와 괴짜(the Freak), 두 여인과 나누는 최초의 진정한 대화, 그리고 이어지는 나체의 수영은 David를 처음으로 Coetminais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교리문답(catechism)과 침례의식에 해당한다. 벌거벗은 Coetminais는 비로소 새로운 신화의 차원을 드러내는데, 그것은 바로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의 이미지이다.

또다른 메아리, 이번에는 고갱이다. 갈색 젖가슴과 에덴의 동산. 이상하기도 하지. 꼬예뜨와 그 삶의 양식은 어쩌면 이토록

자연스럽게 이런 순간들로 녹아드는 듯 느껴지는지. 희미하게 신화적이며 시간을 초월한 순간들, 비현대적인 순간들로.

Another echo, this time of Gauguin; brown breasts and the garden of Eden. Strange, how Coet and its way of life seemed to compose itself so naturally into such moments, into the faintly mythic and timeless. The uncontemporary. (55)

Coetminais는 인간의 육체에 대한 도덕적인 단죄가 이루어지기 이전의, 아름다운 에덴동산으로 드러난다. 이곳에서 별거벗음은 “겉으로 드러내어 보이는 자의식이 아니라 누드촌 사람들처럼 몸에 뻐 희한한 무심함”으로 대체되며, “치녀들의 벗은 몸은 자연스러워” 보이고, “외설이 아니라 이교도적인 포만감”(55)이 팽배하고 있다. 자연의 배경과 인간의 육체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신화가 현실로 나타나는 시공인 것이다. Coetminais는 이렇게 별거벗은 인간본능의 낙원이라는 실체를 드러내면서 David을 그 마력의 세계로 흡수하고 받아들인다. 피크닉이 끝난 후, David은 “홀린 듯, 취한 듯한 느낌”(68) 속에서 “너무나도 즐거웠음”을 고백한다. “무엇보다 받아들여졌다고 느꼈고, 심지어 이제는 가족의 일원처럼”(68) 느끼게 되며, “마치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있던 사람들처럼이 세 사람의 미지의 삶과 점점 더 가까운 그물로 얽혀들어가는 느낌”을 갖는가하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이 신비스럽게 흐릿해지고 멀어져가는”(66) 기분이 드는 것이다. 피크닉에서 경험한 육체적 “별거벗음”에의 눈뜸은 또한 자기 내면의 별거벗은 욕망을 일깨워준다.

그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일종의 정신적—추상적?—인 색욕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허락된 혼음, 다처주의, 두 육체의 애무, 족장의 지배에 대한 남성의 원초적 갈망이 완곡한 물

결로 밀려들었다 ... (중략) ... 그는 자신의 천성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야만성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 남자가 강간을 할 수 있는지를.

He said nothing. He felt a kind of mental—an abstract?—randomness; a sinuous wave of the primeval male longing for the licitly promiscuous, the polygamous, the caress of two bodies, sheikdom... He had a knowledge of a brutality totally alien to his nature: how men could rape.(69)

주목해야 하는 점은 이런 절제되지 않은 원색적 욕구의 자유로운 분출이 예술적 창조의 경험을 상기시킨다는 사실이다. David는 “책임감에서 벗어나 있는 듯한 시간 ... 이토록 급격한 인식의 전환, 인성과 그간 억눌러왔던 욕구들의 분출”을 자신도 모르게 “그림을 그리며 보낸 나날들”(69)과 연결짓는 것이다.

그 순간 David Williams는 Coetminais의 예술적 본질을 간파하게 된다. Henry Breasley의 예술적 힘의 원천이자 로맨스와 미스터리가 가능한 세계, 도덕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은 원초적 욕구가 살아나는 세계, 삶과 자연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세계인 Coetminais는 곧바로 Henry Breasley 자신이기도 하다. David Williams는 Breasley 예술의 핵심을 파악하고자 했던 애초의 사명을 생각보다 더 철저히 완수하는 것이다.

아마도 노인의 진정한 천재를 구성하는 것은 이런 것이리라. 도시로부터의 탈출이라는 낱아빠진 필요성을 실천해, 멀리 떨어진 신비를 찾아드는 것, 그리고 그 고래(古來)의 처방, 켈트적 녹음의 원천이 여전히 유효함을 확인하는 것.

Perhaps it constituted the old man's real stroke of genius, to take an old need to escape from the city, for a mysterious

remoteness, and to see its ancient solution, the Celtic green source, was still viable. (69)

Henry Breasley는 Coetminais의 자연/숲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체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Coetminais의 수수께끼를 차츰 차츰 풀어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Breasley 역시 처음에는 David이 풀어야 할 수수께끼로 제시된다. 특히 난제로 다가오는 것은 작품이 주는 인상과 Breasley 본인이 주는 인상, 즉 작가와 작품 사이의 엄청난 괴리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러나 David Williams가 Coetminais라는 세계를 이해하게 되면서, 이러한 처음의 괴리감은 완전히 사라지고, Henry Breasley 그 자신과, Coetminais의 신비로운 자연과 Breasley의 예술이 얼마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 첫인상을 오도했던 조야한 말버릇, 즉 언어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결점은 “까닭없이 정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보면 평화, 공간의 확보, 영토라는 심층의 동기가 있는, 동물들의 공격적 태도”와 같은 것으로 밝혀지고, Breasley라는 늙은 대화가의 최종적인 인상은 “야생성”으로 남으며, 그가 “실제로는 농원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숲에” (75) 산다는 사실도 밝혀진다. Coetminais의 야생성이야말로 Breasley의 작품에 드러나는 ‘휴머니즘’의 뿌리였다. Henry Breasley와 숲의 관계는 삶과 예술과 자연이 합일하는 하나의 이상적 경지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Coetminais와 Henry Breasley가 성취한 경지는 근본적으로 과거지향적인 것이어서 Breasley와 다른 세계관과 예술관을 지니고 있으며 전혀 다른 세대에 속해있는 David Williams에게는 전적으로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구나 Coetminais는 Breasley의 독재적 군림, 두 여자를 마치 노예처럼 묶어놓는 비도

덕적 마성과 배타적 남성중심주의, 근본적인 반사회성 등 부정적인 면을 드러내어 보이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또다른 측면은 Coetminais의 일원이면서도 심정적으로는 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젊은 여인. “생쥐(the Mouse)”라 불리는 Diana와의 접촉을 통해 David Williams에게 제시된다. 즉, Diana the Mouse는 Henry Breasley가 성취한 것과 다른, David Williams로서 얻을수 있었던 새로운 예술적 지평과 삶의 가능성을 열어보여 주는, 그러나 결국은 성취할 수 없기에 뼈아픈 상실감을 안겨주는 “비밀스런 세계”의 또다른 단면이다.

III

“내 여성 등장인물들은 남자들을 압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남자가 일종의 인공구조물이고, 여자는 일종의 현실이라고 보지요. 전자가 차가운 아이디어라면, 후자는 따스한 사실입니다. 다이달로스가 비너스와 마주치면, 비너스가 승리하게 되어있지요.”

“My female characters tend to dominate the male. I see man as a kind of artifice and woman as a kind of reality. The one is cold idea, the other is warm fact. Daedalus faces Venus, and Venus must win.”⁵⁾

Kerry McSweeney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Diana는 Fowles의 작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냉정하고 지적이며, 젊고 아름다운 영국여자”⁶⁾의 계보에 자리한다. *The Collector*의 Miranda, *The French Lieutenant's Woman*의 Sarah처럼 남성을 성적으로

5) Fowles, McSweeney, p.308에서 재인용.

6) McSweeney, p.308.

유혹함으로써 도덕적 실존적 시련을 겪도록 한 후, 정신적 성장의 촉매가 되는, Fowles적 비너스의 전형적 모습을 띠는 것이다. 그러나 Diana가 상징하는 가치는 Henry Breasley/Coetminais가 상징하는 가치와 완전히 합일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Diana는 Breasley/Coetminais와 시종일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가끔씩 대립하고 부조화를 이루기도 하면서, David Williams와 Coetminais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며 동시에 독자와 David Williams가 Coetminais의 부정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흡수되는 것을 막아준다. 그리고 나아가 Henry Breasley가 아닌 David Williams가 그 자신으로서 이를 수 있는 새로운 삶과 예술의 지평을 보여준다.

“The Ebony Tower”에서 Diana의 역할은 초반부에 이성과 지혜의 여신의 이름에 걸맞게, 기사 David에게 Coetminais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를 쥐어주고, 수수께끼의 힌트를 알려주며, 올바른 길을 가르쳐주는 길잡이로 나타난다. 장원에 들어가는 길을 알지 못하고 문간에서 헤매고 있는 David Williams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도 그녀이고, 처음으로 장원의 내부를 안내하는 것도 역시 그녀이다. 그리고 첫날 밤, 그녀는 Breasley가 보여주는 야만스런 공격을 예고하고, David이 보여야 할 태도를 지시해 주기까지 한다. 그녀는 도통 이해할 수 없을 듯한 Coetminais의 세계와 David Williams를 연결하는 유일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요, 적대적인 미지의 세계에서 유일한 원조자이다.

Diana가 이렇게 Coetminais와 David을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녀가 Coetminais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고, David Williams가 친숙한 세계에 심리적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장원 내부를 안내해 주는 그녀의 태도에서 드러나듯, Diana는 Coetminais의 일원이면서도 냉정한 비판적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 당연히 David Williams도 Coetminais에서 맞닥뜨리는 세 명의 인물 중 그녀에게 처음으로 호감과 연대의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역시 그녀가 다른 누구보다도 자신이 이제까지 속해왔던 세계에 가까이 있음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David이 최초로 Diana에 대해 친밀한 시선을 던지는 시점이 그녀가 왕립 예술학교 출신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라는 점은 이러한 사실을 단적으로 시사한다. 물론 이는 아직 부르조아적인 상식의 편견을 털어내지 못한 David의 설익은 판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작품이 전개되면서 Diana는 더 다양한 의미의 차원에서, 영영 화해할 수 없을 듯한 David Williams와 Henry Breasley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절충공간을 상징하는 인물임이 밝혀진다.

첫날 밤, Breasley가 추상미술에 대해 가하는 비판은 잔인한 인신공격의 색채까지 띠는데, 고조된 감정으로 내뱉는 Breasley의 거르지 않은 거칠고 조야한 언어를 David이 이해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의미있는 토론의 언어로 통역해주는 Diana의 역할은 의미심장하다. David과 Breasley는 서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때, 전적으로 Diana에게 의존하는데, 그녀야말로 양자의 세계와 언어를 모두 이해하고 있는 단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미술학도로서 Diana의 특이한 경력은 이 평범하지 않은 입장을 현실적으로 설명해준다. 그녀는 David와 마찬가지로 이성적 해설과 이론을 중시하는 제도권의 아카데미에 소속된 바 있었으며, 그 이후 스스로 Coetminais에서 도제생활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예술에 대한 논리적이고 지적인 접근과 자연의 인상을 직접적으로 받아들여 표현하는 태도를 모두 체득하고 있다. 그녀 자신이 현현하고 있는 이 특수한 절충주의는 추상화가이면서도 “라일리 시대의 인공성을 벗어나 자연 쪽으로”(14)의 움직임을 모색하고 있던 David Williams에게 “자신의 그림 속에서 늘 추구

하던 것”(56)을 환기시키며 강렬한 매력으로 다가오고, 이러한 예술적 매혹은 “만약 결혼을 하지 않았더라면…”(57)이라는 성적 유혹과 미묘하게 얽혀든다. 결정적으로 뽕풍 숲으로의 피크닉에서, Diana의 인상은 순결한 지혜의 여신에서 금기의 사과를 벗기는 벌거벗은 이브라는 에로틱한 이미지로 전환된다.

밀이삭같은 머리카락을 말리는 모습, 약간 헝클어뜨린, 신경쓰지 않고 내버려둔 듯한 머리카락, 자그마한 덩치, 15세기 이탈리아 양식의 섬세함. 두 다리 사이의 털, 어쩐지 짐승같은 느낌과 대비되어 걸친 옷과 긴 치마가 오히려 전체 인상을 오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비스듬히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사과껍질을 벗겼다.

The way her wheaty hair was drying, slightly tangled, careless; and a smallness, a Quattrocento delicacy, the clothes and long skirts she wore were misleading; contrasted with an animality, the nest of hair between her legs. She sat sideways, facing the lake, and peeled an apple.(57)

그녀가 껍질을 벗기고 있는 사과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선악과이다. Diana가 심어주는 집착에 가까운 강렬한 욕망은 새로운 삶과 예술적 가능성에 대해 눈을 뜨게 해주지만, 그 지평이란 David의 현실적 입장에서는 결코 손이 닿을 수 없는 금기이기 때문이다. 단지 Coetminais의 자연이 표상하는 원초적 욕구의 자유로운 분출인 동시에 육체의 해방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가 싶었던 Diana의 유혹은 David이 그녀를 더 깊이 알게 되면서 예기치 못했던 차원의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고, 단순한 성적 유혹 이상의 도덕적, 예술적, 실존적 시험의 의미를 띄면서 David의 존재를 뿌리에서부터 흔들어놓게 된다.

사실상 Diana는 겉모습과 달리 Coetminais의 분방하고 격렬한 분위기에 완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무소속의 정신적 거리감과 소외감을 내면화하고 있다. 처음에 “단순한 기생인”(56)이라고 David의 혹독한 평가를 받았던 괴짜 Anne은 오히려 Coetminais의 생활방식에 거부감없이 동화되어 있었고, Diana야말로 Coetminais에서 유일하게 “섞이지 못하는 외토리(odd one out)”(67)로 Coetminais의 분방한 삶과 내면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이 점차 분명해진다. Diana 스스로도 “철저히 손녀와 같은 역할을 하리라”는 처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Breasley의 “인습이 부끄러운 것이지 별거벗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느끼게 하는 마술”(60-61)과 같은 힘에 이끌려 마치 “주문에 걸린 것처럼”(61) 외부세계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임을 고백한다. 기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낯선 마법의 세계에서 모험의 실마리를 풀어주던 아름다운 처녀/지혜의 여신은 어느순간 *The French Lieutenant's Woman*의 Sarah처럼 강렬한 유혹의 이브가 되는가 하더니, 다시 *The Collector*의 Miranda처럼 사악한 마법사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박해받는 처녀”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할의 전이는 자연스레 David에게 기사로서 그녀를 구출하는 사명을 부과한다. 그런데, 어쩌서 David Williams가 그 역할에 적합한 기사로 지명되는 것일까?

이는 Diana의 내면적 갈등이 어떤 성격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볼 때 비로소 대답이 가능한 질문이다. Coetminais/Breasley와 Diana의 갈등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두드러진다. 첫째로는 Diana의 내부에 깊숙히 자리잡고 있는 강박적 도덕관념과 충족되지 못한 성적 욕구이고, 두번째로 예술관의 상처로 인한 갈등이다.

Diana는 처음부터 계속 흰 옷, 크림색 블라우스 등의 차림으로

나타난다. 그녀의 단정한 외양과 몸가짐은 꾀짜 Anne의 매두사처럼 뺨친 머리, 검은색 남자속옷 차림과 강렬한 대비를 이루면서 로맨스적인 정숙한 처녀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David으로 하여금 “성적인 서비스는 [꾀짜] 쪽에서만 제공하는 것”(31)이리라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고 그의 호감을 끈다. 그러나, 기실 이러한 외양은 그녀가 Coetminais의 무도덕적인 분방함을 거부하지 못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중산층적 도덕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내면적 갈등의 표출이다. 그리고 이러한 깊이있는 이해는 David가 처음에 “엉터리같은 섹스인형”으로만 생각했던 Anne을 배움으로써 가능해진다. Anne은 Diana와 같은 자의식이 없는 정직함으로 Coetminais의 생활양식(성적 서비스까지 포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머무르고 있고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 자의식적으로 순수에 집착하는 Diana는 머무르는 것도, 떠나는 것도 자의로 하지 못하는 정신적 덩어리에 갇혀있다.

Anne과 Diana의 차이는 외부세계에서의 성적 경험에서도 드러난다. Diana는 남자와 진정한 육체적 끌림의 관계를 갖지 못했던 반면, Anne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터득한 성에 대한 세속적 지혜를 터득하고 있다. 때문에 Anne의 경우, Breasley와의 섹스 관계를 “우스꽝스런 노인네지만 나름대로 섹시”하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겨 버리지만, Diana는 끊임없이 부정하고 싶어한다. 그런 점에서 Diana의 육체는 정신의 덩어리에 갇혀있는 상태로, David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성적욕구의 자유로운 분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있다.

헨리와 샴이 내포하는 육체적 관계는 그녀 자아의 “순수한” 결에 깊은 거부감을 갖게 했으리라. 그녀는 그런 점에서 앤보

다 훨씬 더 도착적이었다. 하지만 진짜 억압은 아마도 정상적인 섹슈얼리티의 억압일 것이다. 여성성이 절규하듯 원하고 있는 ……

The physical side of her life with Henry must be deeply against the grain of her “innocent” self. She was in that sense much more perverse than Anne. Yet the real repression must be of a normal sexuality, a femaleness that cried out for...(85)

그런 점에서 Breasley가 천박하게 표현했듯이, 그녀에게 훌륭한 오입이 필요하다는 말은 사실이다. Diana 역시 David Williams에게 처음으로 진정한 육체적 끌림을 느끼게 되고, 그로써 David은 자신의 육체와 함께 그녀의 육체를 해방시키는 사명을 떠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의 경험 속에서 David 자신도 “육체는 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 순간은, 모든 내일을 합쳐놓은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93)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 육체의 에로티시즘을 완벽하게 향유하는 일은 삶의 진정성(authenticity)을 회복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예술적으로도 Diana는 Breasley의 리얼리즘과 기질적으로 어울리지 못한다. 그녀가 Breasley 식으로 그려낸 작품들은 “인상적이지만, 생명력이 없는 정확성”(23)을 보여줄 뿐이다. 기술적으로는 탁월하지만 몰개성적이고, 늙은 대화가의 분방한 자유로움, 확고함과 활력을 결하고 있어 혼이 들어있지 않은 죽은 작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진정한 그녀의 자질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추상의 능력에서 나타난다. David Williams는 “비평적으로, 동시에 직감적으로”(80) Diana의 예술적 이상을 느끼고 이해한다.

그것은 그 자신의 변천과 매우 흡사했다. 보다 여성적이고, 보다 장식적인 쪽에서 — 형태보다는 질감과 어울림에 보다 중점을 두고 — 그녀는 인공적인 색채범위가 아니라 자연의 색채로 추상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

It did bear an analogy with his own development; in a more feminine, decorative kind of way — more concerned with textures and correspondences than form — she was abstracting from natural rather than artificial color ranges. (81)

Diana는 David에게, 그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을 보며 늘 꿈꾸어오던 부부간의 “예술적 협동관계”라는 이상적 경지를 실현할, 그런 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브리짓 라일리의 영향력을 벗어나 독창적인 추상의 세계를 개척하려 하고 있는 David에게 추상미술이 갖는 비인간적, 반자연적 요소를 제거하고 자연색의 추상을 보여주는 Diana의 예술세계는 새로운 세계에 눈뜬 것과 같은 경험을 안겨준다.

더구나 Diana는 Breasley의 도제 역할에만 만족하지 못하고 외부세계로 나아가 예술가로서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면서도, 외부세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Diana가 Coetminais의 세계로 징검다리가 되어주었듯, David 역시 Diana를 위해 외부세계로의 징검다리가 되어줄 수 있는 배경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David이 배풀어야할 차례가 된 것이다.

이제 그녀는 동화속 “잠자는 공주”(91)의 모습을 하고 있다. 어느 모로 보나, 그녀의 육체적 예술적 정신적 “구출”은 기사(혹은 예술가)로서 David의 궁극적 자질을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임이 명백해진다. Diana는 Coetminais라는 공간에서 David이 터득한 새로운 인식, 새삼 솟구치는 본능적 욕망과 창조욕구를 쏟아

부를 구체적인 대상으로 제시되며, David을 Henry Breasley와는 다른, 그러나 또 한 사람의 진정한 예술가로 성장시킬 수 있는 참된 뮤즈의 이미지로 남는다. 그러나 David에게 진정한 구원은 주어지지 않고, 손만 내밀면 얻을 수 있었지만 결국 상실하고 만 세계에 대한 뼈아픈 회한만 남게 된다.

IV

나는 어떤 예술이나 과학도 자연의 총체적 진실을 그려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중략)...저는 종종 픽션을 쓸 때 이러한 감정을 느끼곤 하지요. 묘사할 수 없고 묘사하려고 시도해서도 안되는 것을 묘사하려고 노력한다는 느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종의 천박한 황폐함, 또는 영원한 이류를 벗어나지 못하는 느낌입니다.

I don't think any art or science can describe the whole reality of nature...I often feel this in writing fiction—that one is trying to describe what one can't and ought not even to be trying; and so is condemned to a sort of vulgar futility, or eternal second best.⁷⁾

David는 마지막 순간 “현대적인 의미, 중세적 의미 양쪽 다에서 실패하고 만다.”(100) 그러나 역설적으로, David을 궁극적인 자아인식에 도달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상실이다. 돌아오는 길에 David는 집요하게 자신이 실패한 원인과 상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반추한다. 더 이상 David는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미화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통렬하게 “자신의 진정한 범죄”(101)를 반추한다. 직접적인 실패의 원인은 그가 도전의 원동력, 활력으로서의 죄에 대해 경직된 도덕주의를 떨쳐버리지 못했기

7) Fowles, “An Interview with John Fowles,” Carol M. Barnum, p.188.

때문이다. Breasley의 경우, 도덕을 무시하는 것이 삶에 대한 도전이자 “상상력과 용기의 행위”(100)임을 철석같이 믿고 있으나, David는 예술의 가치를 인위적 도덕보다 절대우위에 놓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 두려워하며 망설인 것이다.

이러한 David의 실패는 곧 David가 속해있는 세계의 본질적인 실패이다. 도전이 사라졌기에 위험이 없고 안전하고 김빠진 세계. 삶의 활력소로서의 도전을 잃은 인간은 인공적으로 변해가고 자아와 표현의 거리는 멀어져만 가. 공허한 테크닉과 스타일만 난무하게 된 것이다. 이제 그는 자신이 직면했으나 붙잡지 못한 세계, Breasley가 독차지하고 있는 “비밀스런 세계”의 참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부질없는 상상 속에서 언제나 해피엔딩의 무대가 되는 Coet는 “일과 사랑과 달빛이 흐르는 과수원”(100)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예술적 이상향이며 David이 처한 현재의 초라한 존재를 비추는 “거울”(101)이기도 하다. 그가 잃어버린 것, 그가 거부한 것은 바로 “새로운 존재의 기회였으며, 자신의 작품의 궁극적인 성취와 영원성이 그 수락에 달려 있었다.”(104) 이 깨달음은 Diana와의 섹스실패는 단지 “성적 회극”(101)에 불과하고 더욱 큰 실패의 상징일 뿐이 아닐까라는 공포심으로 이어지는데, 결국은 그 실패가 존재의 근저에서 우러나온 불가피한 실패였음을 인정하고, 자신은 “근본적으로 비도덕적인”(105) 예술의 세계에 선천적으로 적합하지 못한 인간임을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는 자신의 작품은 세월 속에 잊혀질 것이고, 결국 역사 속에서 영원히 “그저 한 때 경주에 참가했던 사람(also-ran)”(105)으로 남을 것이라는 확신에 쓰디쓴 슬픔을 삼키지 않을 수 없다.

David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외면적으로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는 처음에 Coet로 자동차를 달릴 때부터 이미 “점잖은 사람이지만 영원한 이류 예술가(a decent man and an

eternal also-ran)”(105)이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Coetminais와 Diana로 상징되는 “비밀스런 세계”의 도전을 받고 난 후 달라진 단 하나가 있다면, David의 자아에 대한 인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에덴의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당한 아담이라고 할 수 있다. 결코 스스로가 닿을 수 없는 지평, 자아와 예술의 합일점에 대한 처절한 갈망을 품고서 일생동안 그 상실감에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비밀스런 세계”에의 침잠으로 일깨워진 David의 예리한 자의식과 그로 인해 빚어질 저주스런 내면적 갈등은 이미 자아와 예술과 자연의 합일이 무척 어려운 궁지에 빠져있는, Fowles를 비롯한 현대 예술가들의 자의식과 상실감을 상징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일견 전통적인 리얼리즘적 내러티브 테크닉으로 쓰여진 “The Ebony Tower”는 결국 또 하나의 메타픽션이어서, John Barth처럼 “하나님 컴마 나는 자의식을 증오합니다”⁸⁾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

참고문헌

- Alderman, Timothy C. “The Enigma of The Ebony Tower.” *Modern Fiction Studies* 31. Spring 1985: 135-148.
- Barnum, Carol M. “An Interview with John Fowles.” *Modern Fiction Studies* 31. Spring 1985: 187-203.
- Conradi, Peter. *John Fowles*. London: Methuen, 1983.
- Fowles, John. *The Ebony Tower*. 1975. New York: New American Library, 1974.
- Lewis, Janet E. and Barry N. Olshen. “John Fowles and the

8) 퍼트리샤 워, 「메타픽션」, 김상구 옮김(1992), p.196에서 재인용.

Medieval Romance Tradition.” *Modern Fiction Studies* 31.
Spring 1985: 15-29.

McSweeney, Kerry. “John Fowles’s Variations in *The Ebony Tower*.”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8. 1981: 303-324.

Vieth, Lynne S. “The Re-Humanization of Art: Pictorial Aesthetics
in John Fowles’s *The Ebony Tower* and *Daniel Martin*.”
Modern Fiction Studies 37. Summer 1991: 217-233.

패트리샤 워. 『메타픽션』 김상구 옮김. 서울: 열음사. 1992.